

בֵּית ספר (책의 집)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

송민원 씀, 아드벤트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게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뜻 안에서
참된 진리이신 당신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상과 구별되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세요.

제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저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 주세요.
저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보여 준 것처럼
저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은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제51권 22호

2025년 6월 1일(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

제109회 총회주제 :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겔 37.14, 행 9.31)

안산교회는 1974년 4월 여천군 월내리에서 설립 후 안산동으로 이주하였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여수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앞선 세대를 섬기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영성과 지성의 조화를 꿈꾸는 공동체,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남 여수시 안산길 172-10 59662

교회 (061) 691-7315 Fax (061) 691-7320 목양실 (070) 4292-8377

† 안산가족 소식

은혜와 평화의 동산 **안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우리교회의 예배를 소개합니다.



- 주일 낮 예배: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를 읽으며 예배드린 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실천합니다.
- 찬양예배: 매월 첫 주일 오후에 모입니다.
- 수요기도회: 매일성경 '그룹 큐티 나눔'을 교재로 활용합니다.
- 새벽기도회: 매일성경 성서일과표를 활용하여 주 4회(화-금) 모입니다.
- 일상기도: 다락방과 중보기도 제목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기도합니다.

1. **예배 ① 주일예배:** 오늘은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이며,
다음 주일은 성령강림절을 시작하는 '맥추감사주일'로 예배합니다.
(공동기도문과 지난 주일 설교 요약문은 사무실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 **6월 오후 활동 안내**
 - 기쁨주일(1일): 찬양예배
 - 배움주일(8일): 나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 항존직 공부 및 독서 모임(22일)
3. **일상의 기도:** 다음 주일 오후 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짧은 기도를 통해 다듬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함께하실 분은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신청순 12명)
4. 오늘은 '이삭줍기' 헌금 주일입니다.
5. **중보기도 제목**
 - 코로나19 극복과 공존(공존, 공생)을 잊지 않기를
 -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및 한반도의 평화와 빈부격차, 이념 및 세대 갈등 해결을 위하여
 - 한국교회의 회복과 사명 감당을 위해
 - 동역자들(방글라데시, 필리핀, 동백사랑교회, 여은교회)을 위하여
 - 노년의 평화와 고난 당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 신앙실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성령강림절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는 바람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시원한 바람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예배 및 자치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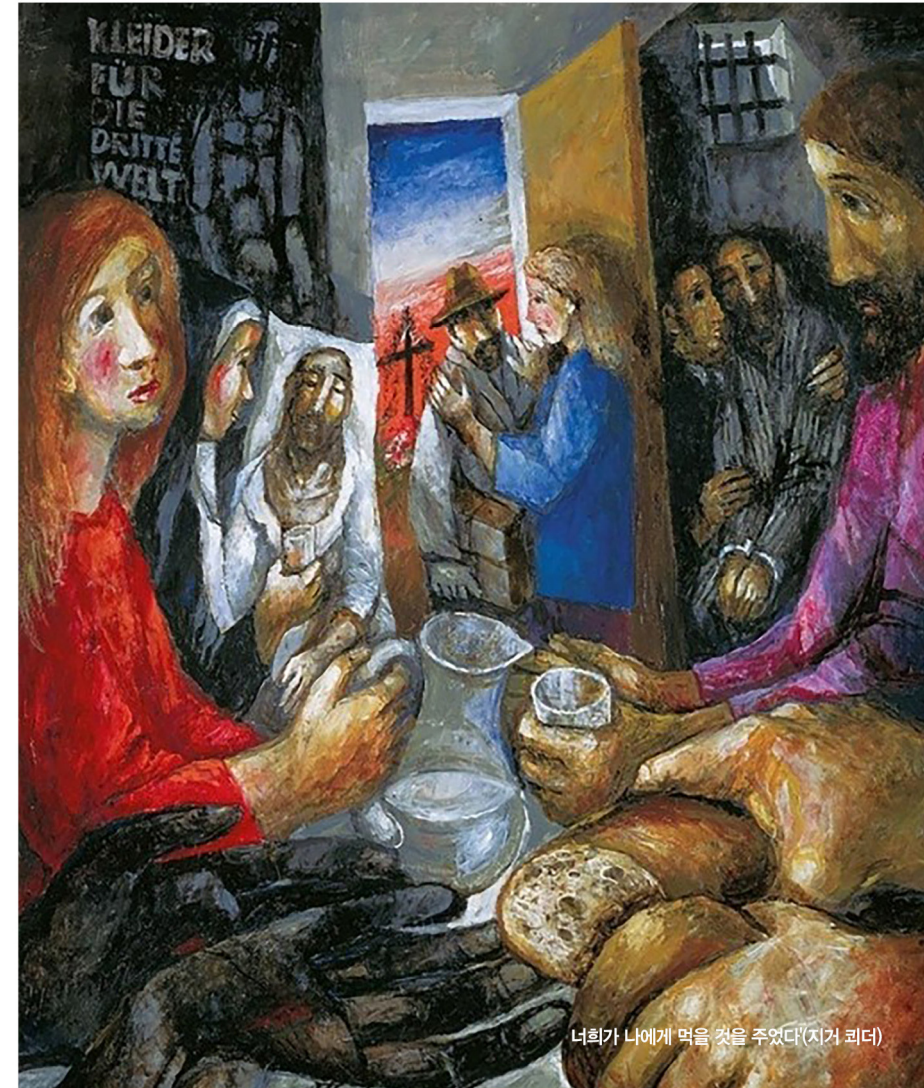
구 분	시 간	장 소	선 교회	연 령
주일낮예배	오 전 11 시	본 당	아 브 라 함	남 성 교 우
수요기도회	오 후 7 시	소 예 배 실	에 스 더	61-70세 여성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소 예 배 실	드 보 라	51-60세 여성
아동부예배	오 전 9 시	소 예 배 실	마 리 아	41-50세 여성
청소년부예배	오 전 9 시	청소년부실	한 나	40세까지 여성
YouTube 채널: 여수안산교회 온라인 헌금계좌: 신한 061-691-7315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평화의 동산

안 산 교 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지저 쿼터)

주 일 예 배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


주일 오전 11시	인도 : 송 혁 목사
경배와 찬양	함 께
* 입 레 송	주 찬양
* 예배의 부름	요한복음 4:23-24
* 송영과 기원	반주, 인도자
* 영 광 송	11장(2절 후, 간주)
함께 드리는 기도	함 께
참회의 침묵기도	함 께
위로와 용서의 말씀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성 시 교 독	시편97편(성서일과표를 보며)
감 사 찬 송	84장(2절 후, 간주)
기 도	장세중 장로
* 성 경 봉 독	요한복음 17:24(신약 177쪽)
찬 양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말씀과 성례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결단의 찬송과 기도	253장(3절 후, 간주)
봉 헌	함 께
성도의 교제	함 께
* 교제의 찬양	382장(3절)
* 축 도	송 혁 목사

* 표는 일어서서 합니다. (헌금은 예배 전,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다음 주 기도 - 김영준 장로

- * 6월 안내위원 : 김보엽, 최형단, 김명숙, 유미경
- * 6월 헌금위원 : 이항재
- * 6월 주방봉사 : 4, 8구역

생명의 말씀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그곳에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영광, 곧 세상이 존재하기 오래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빛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17:24/새번역)

가 뽐 주 일 (찬양예배)

오후 1시 30분	인도 : 이기도 목사
기 도	신중원 집사
오늘의 찬송	심령이 가난한 자는
7월 기도 - 이항재 집사	

수 요 기 도 회

오후 7시	인도 : 송 혁 목사
찬 양	함 께
기 도	김종순 집사
성 경 봉 독	역대상1:1-4(구약 609쪽)
말씀선포와 기도	그 날의 이야기
축 도	송 혁 목사
다음 주 기도 - 이수경 권사	

일 상 기 도 (매일성경)

날짜(요일)	목상 본문	5일(목)	역대상 7:1-8:40
2일(월)	역대상 2:1-55	6일(금)	역대상 9:1-34
3일(화)	역대상 3:1-4:43	7일(토)	역대상 9:35-10:14
4일(수)	역대상 5:1-6:81	8일(주일)	역대상 11:1-19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여수지역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

지 난 주 일 말 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요한복음 14:23-29)

성서일과표/사도행전 16:9-15, 시편 67:1-7, 요한계시록 21:22-22:5, 요한복음 14:23-29

요한복음 13-16장은 이른바 예수의 ‘고별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락의 배경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13장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 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 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식탁에 초대한 후,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라고 합니다. 유다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갔고, 주님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다며 곧 제자들을 떠날 거라고 했지요. 그리고 막아서는 베드로에게 새벽닭이 울기 전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 할 것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제자 중 하나는 스승을 배신하고, 수제자는 스승을 모른다고 하고, 스승은 떠난다고 하시니 제자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두려운 마음도 들었겠지요. 이렇게 뒤숭숭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자 도마가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의 신적 자기 선언 가운데 하나인 유명한 구절 이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번에는 빌립이 나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난장판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제자들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말은 속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다는 뜻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불안과 답답함을 드러내는 표현이 지요. 사실 이는 당시 제자들만의 불안이 아닌 모든 인류의 실존이며,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서를 읽으며 예수를 따르던 1세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쉽게 부르지만,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스스로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는데, 그 중 하나가 ‘길 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선언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길은 여행 혹은 삶의 방식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안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는 순례자들이 곧 주님의 제자인 것이지요. 사실 포로 후기 이스라엘은 성전도 왕도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나타나심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에서 그곳에는 성전도 빛도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과 빛이 되시기 때문이지요. 이 말은 모든 것 속에 하나 님의 얼굴, 그분의 신성이 깃들여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거룩한 꿈을 붙잡고 당신과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행하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됩니다. 한 사람이 생명의 씨앗을 싹틔우면 삼십 명 육십 명 백 명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삼십 개 육십 개 백 개의 씨앗으로 다시 생명을 퍼뜨려 갑니다. 삼십 명 중에 한 명 육십 명 중에 한 명 혹은 백 명 중 단 한 명만이라도 생명의 씨앗을 소중히 키워 나간다면 그분의 말씀은 생명력을 잃지 않고 온 땅에 퍼져 나갈 거예요. 씨앗이 움트는 것은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지가 자라고 꽃이 피는 소리는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실체가 아닙니다.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살롬.